

2019년 제6차 3x3 농구 위원회 회의 결과

협회는 2019년도 제6차 3x3 농구위원회를 소집하여 회의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1. 회의명 : 2019년 제6차 3x3 농구위원회 회의
2. 일시/장소 : 2019. 10. 8.(화) 11:00~12:30 / 잠실학생체육관 VIP 라운지
3. 성원.개회 : 재적위원 7명 中 7명 출석
4. 전차회의록 초록 낭독
5. 보고사항
 - 가. 2019 KBA 3x3 코리아투어 강릉 대회 결과 보고
 - 나. FIBA 3x3 U18 Asia Cup 2019 파견 결과 보고
 - 다. 2019 KBA 3x3 코리아투어 파이널 대회 결과 보고
 - 라. FIBA 3x3 U23 World Cup 2019 파견 결과 보고

발언위원	발언 내용
권부원 위원	매 국제대회 파견시 동일한 현상으로 보완이나 대책이 무엇인지?
정한신 위원	많은 훈련 기간과 후보군 보충이 필요- 단기간에 4명 선수로 훈련하여 참가하다 보니 조직적인 플레이 수비에 대한 훈련이 부족한 점/ 매 대회시 선수가 바뀌어서 참가를 하므로 더 많은 훈련 기간이 필요(예산이 수반되는 상황) - 타국의 경우 2군을 선발하여 같이 훈련하여 파견하고 다수의 대회에 파견하므로 국제 경쟁력이 있음.
여봉구 위원	다른 나라와 같이 국가대항전은 협회의 예산으로 참가하고 챌린지나 월드투어와 같은 시티베이스 대회는 후원사를 찾아서 대표팀을 참가시켜 국제 경쟁력 고취 의견제시
박 한 위원장	협회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국가명을 달고 나가는 대회를 제외한 챌린지 대회에 참가하는데 후원사를 찾는 데 위원님들이 노력해 주시길 당부 함.

6. 심의사항 및 의결내용

심의사항	의결내용	비고
① 한국 3x3 2020 도쿄 올림픽 참가 방안의 건	▶ 올림픽 1차 예선 참가를 위한 포인트 취득을 위한 대회 개최에 원안 의결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 한 위원장- 현재 랭킹이 20위여서 올림픽 참가가 불투명할 수 있으므로 대회 개설 필요가 있으며, 협회 사무처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여 대회 추진 요구 • 권부원 위원- 포인트 적립을 위해서 대회 개최에 동의 제시 • 정한신 위원-U23 월드컵에 참여했던 선수들에게도 대회 개최되면 참가하도록 조치 함. 또한 대회 예산이 없으므로 후원 업체 섭외 필요 • 장국호, 여봉구, 구정회 위원- 대회 개최에 동의 • 위원 전체 동의
② 2020 KBA 3x3 코리아투어 및 코리아리그 운영 방안의 건	▶ 2019년도 대회 종합 평가 회의를 개최하여 장단점 파악 후 2020년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기로 의결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국호 위원- 파이널 대회시 초등학생 참여로 대회 분위기가 좋았으므로 어린이(유소년)3x3농구대잔치 개최하면 스폰서는 있을 것으로 보임. • 권부원 위원- 코리아투어 참가팀 확보 방안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세환 위원- 초, 중, 고 학생들에게 3x3농구 할 수 있도록 방안 모색 필요 • 여봉구 위원- 상금은 오픈부에만 주고 학생부는 아마추어리즘 형태로 상금보다는 상품으로 지급하고 또한 학교스포츠클럽이나 방과후 스포츠클럽에 3x3농구 종목 추가 노력 필요 • 박 한 위원장- 2019년도 코리아투어 전반에 대한 평가회를 하여 내년도에 3x3농구 전반에 대한 기획이 필요 함.
<p>③ 기타토의</p>	<p>▶ 한국 3x3연맹 신창범 부회장을 위원으로 위촉하자는 의견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세환 위원- 협회의 추천 목적이 있는지?/ 같은 형태의 타 단체에 소속되어 그 단체를 운영하는 분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안하고 협조하는 것은 좋으나 위원으로 들어오는 것은 맞지 않음. • 여봉구 위원- 연맹 창립시 김도균 위원이 연맹 회장으로 갔고 그때 타 단체 회장이므로 위원으로 활동하는게 맞지 않다고해서 사임을 유도했는데 또 다시 그 단체 부회장을 영입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위원으로 들어야 하는 목적이나 특별한 사항이 있는지? • 장국호 위원- 사적 단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위원으로 들어오고자 노력하는데 목적이 무엇인지?/ 타 단체 책임자가 위원으로 들어오는 것은 맞지 않음. • 권부원 위원- 3x3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하는데 찬성하지만 탁월한 능력이 있거나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 함. • 정한신 위원- 무엇인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으로 들어오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 올림픽 참가에 도움이 된다면 좋겠지만 협회의 일정과 중복하는 부분이나 전반적으로 협회와 경쟁되는 부분도 생각할 필요가 있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연맹이든 KX0든 공유할 필요성이 있으나 위원으로 위촉은 고려함이 좋음. • 박 한 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을 잘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의견이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잘 명시해서 보고를 올리시길 바랍니다.
	<p>▶ 올림픽 예선에 참가할 시 선수 구성과 훈련에 대한 토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한신 위원- 현재 모든 대회가 종료되어 별도의 대회를 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코리아투어를 통해 보아온 선수들을 대상으로 트리아아웃을 실시 의견 제시 • 장국호 위원- 코리아투어 입상 팀들도 있고 그 동안 국제대회에 참여했던 선수들도 있어 다 방면으로 파악하여 선수 선발 트리아아웃 진행 의견 제시 • 박 한 위원장- 11월 1일부로 올림픽 1차 예선 참가여부가 확정되니 그 이후에 선수 선발에 대한 트리아아웃 계획을 논의하자는 의견 제시

대한민국농구협회 3x3농구위원회